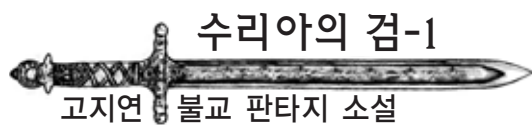


어떻게 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암흑 속의 두 소년⑦

칼키는 한숨을 크게 내쉬는 무니의 어깨를 툭하고 쳤다.

“하지만, 또 지금처럼 다시 움직이긴 할 거 아니야! 하여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놓자구. 수영은 할 수 있다고 했지?”

무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응!”하고 대답했다. 칼키는 격려하듯 무니의 어깨를 다시 한 번 툭툭 쳤다. 파라지타가 뿜어내는 향기가 점점 더 짙어지는 느낌이었다.

두 소년이 이제 막 탈출의 기회를 잡은 그 순간, 루드라는 카일라사산도 자신의 신전도 아닌 ‘우주의 풀’이라고 불리는 수메루 산의 계곡들을 뒤흔치는 중이었다. 이는 그가 막 얼음의 성으로 내려가 두 소년을 만나 보려던 그때 그에게 전해졌던 어떤 보고 때문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루드라는 흔들림 없이 강력한 힘을 지닌 최고의 신이었으며, 좀처럼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였다. 그런 루드라가 자신이 행하려던 일을 접고 단숨에 수메루 산에 올라갔다면, 이유는 단 하나다.

“성가시게 하는 노인네군.” 루드라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하얀 소, 난디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테드모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긍정의 표시를 하였다. 신이 아닌 존재에게 수메루 산은 건디기 힘들 만큼 강력한 기운을 발생하는 곳이었다. 그 힘은 지금 테드모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루드라가 힘들어하는 그에게 신의 숲, 소마를 건네려던 참이었다. 문득 루드라의 세 번째 눈이 번쩍하는 광휘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무니가 파라지타의 움직임을 목격한 이후, 나무가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반들거리는 물발 이파리들이 거대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였다. 칼키가 계속 밖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무니는 그가 며칠 전에 해준 탈출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고 있었다.

일단 괴로움이 없는 연못에 뛰어내리게 되면, 그들은 그 물부터 마셔두기로 하였다. 이 탈출 계획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 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극한의 추위라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는 지, 아닌 지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영을 하며 연못 주위를 둘러본 다음, 풀이 조금이라도 나 있거나 보드랍게 눈이 쌓여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했다. 간수가 칼키에게 해주던 말처럼, 땅 속으로 파듯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줄기가 존재한다면 그나마 그들이 탈출하기 가장 좋은 경로도 그 길일 것이다. 무니가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도 생각했던 것이지만,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영원의 감옥을 빠져나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이봐.” 무니가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칼키가 그를 불렀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야.”

무니가 바깥을 내다봤다. 도저히 무엇인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나무 덩굴처럼 보이는 것이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나무들이 서로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바로 파라지타의 뿌리 부분이었다. 칼키는 그 뿌리 부분부터 시작해 엄청난 두께의 줄기, 그리고 아래로 쏟아져 내려져 있는 가지와 잎 부분까지 살펴보고는 창밖으로 몸의 절반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를 따라 역시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던 무니가 문득 몸을 돌려 자신이 며칠 동안 머물던 방을 바라봤다. 아무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투명한 느낌까지 주는 얼음 색 벽, 천장 가운데 덩그러니 붙어있는 등과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이 복도와 방을 가로막고 있는 창살까지. 만약 그들이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기 남아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언젠가 이 방에 들어올 또 다른 어떤 존재들도 마찬가지이리라. 어쩌면 무니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무니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다.

“저건 뭐지?” 무니의 말에 칼키 역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다.

“마히사야!”

칼키가 놀라 외쳤다. 날개처럼 펼쳐진 붉은 망토와 태양빛에 반짝이는 황금색 허리띠, 분명한 마히사 부대였다. 놀란 무니와 칼키의 시선이 마주쳤다. 파라지타는 점점 더 그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들이 뛰어내릴 수도 있을 만큼 가까이 올 것 같았지만, 마히사들의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창가에 파라지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며, 마히사의 모습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지자 무니가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쩌지? 저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걸까?”

그러나 칼키가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순식간에 눈앞을 가렸던 파라지타가 사라지고 주위가 환해졌다. 마히사의 행태는 아까보다 더 뚜렷이 보였으며, 그들이 향하는 방향도 얼음의 성만이 더욱 분명해졌다. 칼키는 당황하여 창밖으로 다시 몸을 내밀었다. 무니도 마찬가지로 몸을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 봤다. 나무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괴로움이 없는 연못 위에 멈춰서 있고 가지를 담고 있었다. 무니는 다시 하늘을 쳐다봤다. 마히사는 더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칼키가 말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먼 곳에 멈춰버렸어. 저대로 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삽화 · 김홍인

무니 역시 나무와 자신들의 거리를 가늠해봤지만, 마히사들처럼 날지 못하는 이상 그 뿌리까지 뛰어내리기란 힘들어 보였다. 칼키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뱉으며 말했다.

“게다가 아무래도 저들의 목적은 우리인 것 같아.”

두 소년은 팔려있는 망토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마히사들과 다시 멈춰버린 파라지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쩌되었든 무슨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야 했다. 무니가 먼저 말했다.

“뛰어내리자!”

칼키는 눈을 번쩍 뜨며 무니를 쳐다봤다.

“어쩔 수 없잖아. 저들이 왜 오는지는 몰라도, 만

약 저 나무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도 어떤 어떻게 해?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칼키는 다시 하늘을 쳐다봤다. 마히사 중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알았어. 뛰어내리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시선을 교환했다. 칼키가 말했다.

“내가 먼저 뛰어내리게.”

칼키는 뭔가를 가늠하듯 파라지타의 뿌리를 훑어질 듯 쳐다봤다. 연못물을 빨아들이는 듯 파라지타는 서서히 팽창하고 있었고, 다행히 뿌리 역시

조금씩 얼음의 성 가까이까지 뻗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마히사들이 저공비행을 하며 그들 앞에 확실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칼키는 무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라지타를 향해 뛰어내렸다. 마히사들은 예상치 않은 그 상황에 다들 멈춰서고 말았다. 무니는 그 틈을 타 칼키와 마찬가지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마히사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붉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두 소년의 모습은 파라지타의 얽히고설킨 뿌리 사이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편, 제대로 뛰어내린 칼키와 달리, 무니는 뿌리 중에서도 가장 가는 부분에 대충대충 매달린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무니는 눈으로 칼키를 애타게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까마득한 아래에 연못이 보였다. 원래는 나무를 타고 가다 연못으로 뛰어들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무니는 다시 한 번 몸을 아래로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윽고 그를 발견한 마히사들이 더 많은 화살을 그를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다. 이미 그의 위치를 파악한 마히사들의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연못을 향해 곧장 내려오기 시작했다. 무니는 할 수 없는 한 가장 빨리 연못의 가장자리 쪽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허벅지였다. 이미 그의 머리 위로 수십의 마히사들이 붉은 망토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무니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화살을 겨누며 멈춰 있었다. 무니 역시 어쩌할 바 몰라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무리 중 하나가 먼저 무니가 있는 쪽으로 화살을 툭하고 쏘았다. 다행히 그 화살은 무니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파라지타의 가지 하나에 날아가 쏘았다. 순간 무니가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고, 마히사들의 화살 역시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화살이 이번에는 제대로 무니의 뒤통수를 향해 겨누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때 연못 아래에서 누군가 무니의 발을 끌어당겼다. 칼키였다.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던 무니는 물속으로 끌려 내려왔다. 그러나 화살은 무니의 심장 쪽을 정통으로 맞췄고 말았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무니의 눈이 서서히 감기 시작했다. 잠수 중이었던 칼키의 눈빛은 놀라움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어느새 의식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이미 망토를 접고 연못 안까지 잠수해 들어온 마히사들이 다시금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두 소년은 그대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무니의 심장에서 피대한 강력한 빛이 뿜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테드모가 무니의 몸에서 떼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조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마히사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그 빛은 연못을 뚫고 나와 파라지타의 나뭇잎까지 태울 정도였는데, 이윽고 커다란 장을 형성해 무니와 칼키를 보호하듯 에워쌌다. 잠시 후 두 소년의 몸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부끝>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생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불교 전통의례 수강생 모집

안채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일용의식의 정착과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의 계승·복원·발전을 위해 전통 의례를 전승할 뜻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교수진 -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장 동주원명 - 불교 의식 전공 이수자 - 불교 의식 및 음악학 관련 박사학위자
● 교육내용 1. 일용 권공 의식(상용의식·상주권공·안채비·홀소리) 2. 의식진행을 위한 법구 연주(금고·태징·법고·호적 및 장단) 3.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영산재·수륙재·예수재·시왕재) 4. 한국 불교 전통 의식무(바라무·법고무·나비무)

- 자격기준 - 비구·비구니
■ 교육기간 - 이수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 개강 -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 교육일시 - 매주 1회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 2011년 3월 2일(수요일) 오후 2시 흥원사 교육관

주관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범패·작법 보존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26번지 흥원사 02) 2658-3100